

목포뮤직플레이 개막 준비 ‘한창’

관계자 참여 세부계획 보고회

전국 규모 경연대회·공연 등 다채

국내 첫 축제화...9월 30일 개막

탑 5명 상금 1억1,500만원 눈길

목포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목포뮤직플레이 개막 준비에 한창이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갖고, 뮤직플레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홍을 시장을 비롯해 집행위원회 위원,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목포 뮤직플레이를 통해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목포가 음악의 도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뮤직플레이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갯바위 문화타운에서 전국규모 경연대회, 공연, 콘텐츠관, 음악체험시설, 난쟁제즈극장, 전국댄스경연대회, 숲속음악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방송을 통해 각종 경연대회를 펼치고 있지만, 이를 축제화 시킨 사례를 목포가 처음이다.

목포 뮤직플레이에서 탑 5명에 대한 시상금은 1억 1,500만원으로 전국적 관심을 집중시키

고 있다. 심사위원은 국내 유명 작사·작곡가가 참여한다.

예선1차 온라인 심사는 더크로스 이시하, 홍성민(작곡가), 김영서(작곡가 및 보컬디렉터) 등 3명이 참여한다.

예선 2차, 준결승, 최종 결승 오프라인 심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이견우(1,200곡 이상을 작사), 홍진영(작사·작곡가·음악감독), 박현우(1,500여곡 작곡), 위종수 작곡가, 손무현 기타리스트 등 5명이다.

탑 5명에 대한 베네핏도 준비중이다. 일단 3개 기획사인 꿈의 엔진, 더하기 미디어, 토탈셋과 1차 협의를 마치고, 향후 연습생 등록 등을 통해 가수 등용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목포 뮤직플레이 개최 배경이 목포의 음악적 자산인 만큼, 목포 출신가수들과 목포에 스승을 둔 제자들을 초빙했다.

주무대 1에서는 열리는 개막식 첫날에는 이난영 선생의 딸이자 우리나라 한류 첫 시발점인 김시스터즈 리더를 초빙했다.

김시스터즈(숙자)는 이날 ‘목포의 눈물’과 우리나라 최초 한글 재즈곡인 ‘다방의 푸른꿈’을 공연할 예정이다.

또 국민가수 남진, 박애리·팝핀현준을 비롯해 양지은, 김준수, 엑스의 서진실을 초빙해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을 추진한다.

또 젊은층이 찾는 목포, 젊은 목포를 겨냥하여 MZ세대를 겨냥한 뮤지션도 구성한다. 다비

치, 옥상달빛, 너드커넥션, 로꼬, 이승윤, 비와이 등을 섭외했다.

주무대 2에는 전영록, 녹색지대 등 70~80세대들이 좋아하는 감성무대로 연출하며, 프린지1은 시민참여무대로, 문화예술공연장은 시립예술단체 공연과 OST 음악감상 공간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음악의 도시, 목포만의 색을 칠했다. 1920~30년대 이난영에서부터 현재 남진에 이르기까지 목포대중음악의 큰 획을 긋고 있는 목포음악자산 콘텐츠관을 구성한다.

근대문화 보유도시, 목포만의 차별성도 축제에 반영했다. 목포 근대성을 상징하는 인테리어, 모든 공연자 경성복장 착용, 흥이점, 갑자옥모자점 등 목포 근대성을 축제화했다.

뮤직플레이는 댄스와 음악을 동시에 즐기는다는 의미로, 예선에서 16개 팀을 선정, 8강에서 4강을 거쳐 최종 2팀을 뽑는 자리다. 우승팀은 300만원, 준우승팀은 100만원이 주어진다.

또 코카엔버터(M.NET 스트릿우먼파이터 출연팀), 앤프(M.NET 스트릿걸스파이터 출연팀) 등이 특별 출연한다.

LP판, 시디, 카세트 테이프 등 전국단위 모집 전시판매 플리마켓도 차별화를 뒀으며, 입암산 숲속에 그랜드 피아노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목포 뮤직플레이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목포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장흥군 장동면이 물축제를 앞두고 최근 버스승강장 일원에 대해 청소를 실시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 장동면, 물축제 대비 버스승강장 대청소

장흥군 장동면이 물축제를 앞두고 최근 버스승강장 대청소에 나섰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물축제를 대비해 86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21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한 소독과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손길이 닿은 버스승강장은 불법 광고물과 거미줄, 쓰레기 등을 모두 걷어내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승강장 유리에 물을 뿌리고 걸레질을 통해 먼

지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대청소 후 지역민들이 먼저 좋은 반응을 보였다.

버스승강장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바꿔놓은 장동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환경 정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동면 관계자는 “7~8월은 휴가철, 그리고 물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여서 대규모의 관광객들이 장흥지역을 찾을 것”이라며 “자칫 지나치기 쉬운 곳부터 생활환경 개선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도내 최초 고령친화도시 회원 재인증

나주시는 전남도내 최초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고령사회 정책의 국제적 정보·정책 공유의 장이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도내 지자체 중 최초, 전국 12번째로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8대 분야 23개 중점과제, 49개 지표로 구성된 제1기 실행계획(2019~2022) 평가 결과와 제2기(2023~2027) 추진 방향을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해 재인증을 받았다.

재인증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분야에 기반한 5개년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 정책 발굴, 추진에 힘을 계획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암, 친환경 집적화단지 공동방제단 발대식

병해충 피해 최소화 총력

영암군은 최근 서영암농협과 함께 서영암농협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집적화단지 공동방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원식 서영암농협조합장을 비롯해 친환경 방제업체 및 단지 대표 등 공동방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대식의 의미를 더했다.

공동방제단이 방제할 경작규모는 서영암농협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집적화단지로 신규 인증예정인 27ha를 포함해 약 130ha이다.

군은 최근 기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먹노린재 등 병해충 발생 빈도는 적으나, 전년도보다 공동 방제시기를 앞당겨 실시해 사전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서영암농협과 함께 서영암농협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집적화단지 공동방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병 해충을 방제할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드론, 무인헬기를 이용한 선제적 공동방제로 농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효

과를 높여 고품질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함평, 상반기 공모사업 430억 확보

작년보다 267억 증가

함평군이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전남도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4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확보한 공모사업 16건 163억원 보다 267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군의 이 같은 성과는 중앙부처 및 전남도의 정책 방향을 사전 분석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행

정을 펼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촌협약 333억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0억 4,0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억 4,000만원 ▲농촌유류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등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은 물론 민선8기 지역 역점사업 추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군 지사협, 찾아가는 황토골 복지학당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일로읍 분회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황토골 복지학당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복지학당에서는 4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자립지원을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 교실과 요리체험 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복지학당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개발선진장이라는 식물을 화분에 심어볼 수 있어 좋았고 선진장에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잘 키워보겠다”며 “요리체험 교실에서는 식당에서만 먹던 불고기백반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나주 다도면, 민·관 협동 꽃길조성

나주시 다도면은 최근 새마을부녀회원과 함께 2022년 민관이 함께 하는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꽃길조성은 새마을부녀회원, 다도면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나주호 생태탐방로 진입로 일원 700m구간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이 사업은 행정과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단을 구성, 지역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

최영숙 새마을부녀회장은 “분주한 농번기임에도 꽃길 조성에 구슬땀을 흘린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은 다도면, 아름다운 나주호 생태탐방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



신안, 연료운반선 ‘1004에코호’ 취향식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료운반선 ‘1004에코호’의 건조와 시험운항을 마치고 지난 11일 압해읍 송공항에서 취향식을 가졌다.

1004에코호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 군비 15억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한

228톤 규모의 차도선으로 5톤트럭 8대 선적이 가능하고, 승선인원은 15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에코호 취향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을 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와 생필품 공급이 가능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